



### 할로 죽이고 방으로 살리고

〈82〉 우연지(尤延之) 거사

거사 우연지(尤延之)는 그렇게 대중적으로 크게 알려진 인물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냥 흘려 지나칠 수 없는 사람이다. 그는 조정의 공물운반을 맡은 조운사(漕運使)를 지냈다. 조운사는 나라세금의 일부분을 거두어들이는 소임이라 원칙주의자가 되어야만 한다. 그 뒤 홍주(洪州)태수를 지냈다. 홍주는 마조도일 선사가 활약했던 강서지방의 중심도시인지라 마조 문파를 홍주종이라고 부르며 된 인연을 가진 곳이다.

우연지 역시 다른 여는 거사와 마찬가지로 처음부터 신심이 있었던 것 같지는 않다. 철저한 유가적 질서에 입각하여 자기의 정체성을 찾았기 때문에 출가자들 역시

청하였지만 각별 선사 역시 한 입으로 두 말 할 위인은 아니었다. 이 사건 이후 우연지는 태도가 달라졌고 강서의 모든 사람들이 공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힘을 다시 갖게 됐다. 한 사람이 주지직을 때맞춰 잘 버리면 모두가 살게 되는 도리가 있다.

알고보면 우연지 역시 본래 선지(禪旨)가 있는 사람이었다. 이후 당연히 수행법을 공부하게 되었고, 그 경지가 날로 깊어졌다. 그는 불조덕광(1121~1203) 선사를 스승으로 모셨다. 덕광 선사는 간화선의 교과서(서장)의 저자인 대혜종고 선사의 법을 이은 분이다. 당시 효황제 역시 덕광 선사의 제자였다. 황제와 우연지는 왕과 신하이기도 했지만 같은 스승을 모시고 있는 동문인이라 자주 격의없이 법담을 나누었다. 그런 도반 우연지가 태주(台州) 태수로 나갈 때 효황제가 물었다.

“그대 태주로 가는데, 가는 길에 어떤 명소가 있는가?”

“국청사(國淸寺)와 만년사(萬年寺)가 있습니다.”

“그 지역은 오백나한이 모여서 있는데 그들은 힘이 세다. 만약 그들이 한꺼번에 나타난다면 무엇으로 맞서겠는가?”

그러자 우연지는 주먹을 골추세우고는 말했다. “제겐 금강왕 보검이 있습니다.”

무슨 대단한 깊이를 가진 선문답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런대로 주머니 받거나 하는 품새가 평준치는 되는 것 같다. 어쨌거나 우연지는 당시의 빼어난 시각을 교정시켜 준 혜홍각범 선사가 입적했을 때 몸소 선사의 일대기를 정리해 주었다. 그리하여 법은(法恩)에 감사하는 그의 진심을 고인에게 늦게나마 전했다.

■ 원철 스님(조계종 총무원 기획국장)



#### 태수 부임 후 지역 주지 불러 큰절 요구

#### 혜홍 선사, 주지직 내놓고 불쾌함 피력

#### 훗날 선사 일대기 정리... 법은에 보답

그런데 그 때 그 지역의 광효사(光孝寺) 주지는 혜홍각범(10711~128)선사였다. 그 역시 표장 표장 그 자체였다. 그가 선가의 이런저런 뒷이야기들을 모아놓은 〈임간록(林間錄)〉의 편집도보를 보면 그의 성품이 확연하게 드러난다. 동시에 항상 선사의 기개를 잃지 않았다. 우연지가 스님들까지 불러다가 인사를 받았다는 소리를 듣고서 ‘이럴 수는 없다’며 매우 불쾌하게 여겼다. 그리고는 북을 울려 대중을 모이게 하고는 법상에 올라가 주지직 사임을 알리고는 이렇게 외쳤다. “조사의 살림살이는 원래 큰 것이었는데, 누구에게 감히 자질구레하게 허리를 굽히라? 똑똑하신 태수님 안녕히 계십시오. 나는 죽장에 짚신 신고서 마음껏 노닐고자 하오.”

태수 우연지가 제대로 주인을 만난 셈이다. 물론 주지임명권이 태수에게 있긴 하지만, 그가 출가자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를 모르는 바는 아닐 터이다. 미안한 마음에 사람을 보내 다시 돌아와 줄 것을 요

#### ■ 괴로움의 원인

괴로움의 원인은 모두 나의 밖에 온 것이다. 돈 때문에 그렇고, 병 때문에 그렇고, 자식이나 아내, 형제, 직장 동료 때문일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이 ‘나’를 괴롭힌다. 이것들이 바뀐다면 내 괴로움은 없어질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뜻대로 안된다. 이게 인간세상의 일이다. 그래서 인간보다 한

# 일상에서의 행복 見道에 달렸다

## 법륜 스님 '일상에서 행복찾기' 강연 요지

우리 인생을 되돌아보자. 그때그때 깊이 생각하고 결정해서 선택한 것들이 지나고 보면 전혀 생각지도 못한 방향으로 나타나는 일들이 적지 않다. 행복을 위한 선택이 불행의 근원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우리는 늘 갈등하고 괴로워한다. 자식 때문에, 사업 때문에, 고부갈등 때문에, 친구 때문에... 벗어나려고 발버둥치지만 그럴수록 갈등만 더해간다. 그 모든 괴로움의 원인은 무엇이고,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법륜 스님(경토회 지도법사)은 일상에서의 수행이 그 열쇠라고 단언한다.

10월 17일 대구 정토회관에서 열린 법륜 스님의 '현대인을 위한 깨달음의 강좌-일상에서 행복찾기' 두번째 강좌 '괴로움에 없는 삶-수행' 강의 내용을 문답식으로 정리했다.

#### ■ 수행이란

꿈 속에서 강도를 만난 사람이 구하는 행복은 강도로부터 도망가는 것이다. 하지만 꿈을 깨면 강도는 없다. 강도로부터 괴로움은 꿈속에서 만들어진 것이

없다. 자리를 틀고 앉아 참선을 한다고 해도 견도가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취가 쓰레기통을 뒤집다 냄새도 좋고 빛깔도 좋은 음식을 발견하고 덥석 물었다.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을 생전 처음 먹었지만 취는 죽었다. 취약을 먹었기 때문이다. 이 때 취는 신을 원망해야 하는가, 아니면 내 죄가 많아서 그렇겠냐고 한탄해야 하는가. 그도 아니면 팔자라고 해야 하는가. 취가 죽은 것

### 괴로움 벗어나는 길 '자신'에게 있어

### '무지' 확연히 알아차림이 바로 수행

### '마음의 눈' 뜨려면 꾸준히 노력해야

발 더 나간 존재인 신에게 빌게 되고, 이런 생각에서 종교행위가 비롯됐다. 하지만 종교도 이런 고뇌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한다.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고뇌를 해결해야 한다.

#### ■ 불교로 고뇌를 해결할 수 없다

불교에는 두 가지 개념이 있다. 다른 종교들과 마찬가지로 '종교'로서의 의미가 있고, 다른 하나는 '진리'로서의 불법이라는 의미가 있다. 다시 말해 부처님의 가르침으로서의 '불교'요,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길이기 때문에 '불도'요, 진리의 법이라 해서 '불법'이라 부른다. 불법은 무조건적인 믿음을 강요하지 않는다. 자신의 식견으로 분별하고 판단하도록 한다. 따라서 불교는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이 '자신'에게 있음, 그리고 그것이

다. 꿈속에서 강도를 쫓아줄 도움을 바랄 것이 아니라 꿈을 깨면 된다.

문제의 원인은 안나에 있다.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은 눈을 뜨는 것이다. 수행이란 벌고 바라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눈을 뜨는 반복적인 노력이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놓친 것이 있다 하더라도 놓쳤다는 사실을 알아차리면 된다.

이렇게 10번이고 100번이고 반복하다 보면 좌절할 수도 있다. 하지만 좌절해서는 안 된다. 될 때까지 하는 것이 수행이다.

#### ■ 어떻게 수행해야 하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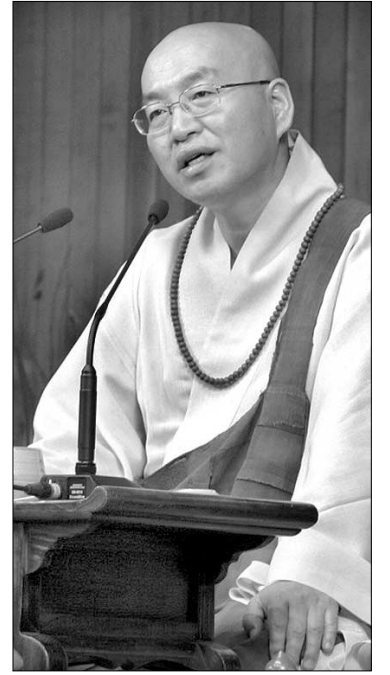
수행은 이치를 찾아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무지를 확연히 아는 것이다. 그래서 '도를 본다'고도 하는데, 이것이 바로 '견도'다. 견도 없이는 제대로 수행할 수



은 취약인 줄 모르고 먹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모든 괴로움은 무지에서 생기는 것이다. 지금 자신이 먹고 있는 것이 취약인 줄도 모르면서 수행을 한들 깨달음에 이를 수 있겠는가. 취약을 먹고 안 먹고는 자신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취약을 취약인 줄 아는 것이 견도다. 견도를 해결하고 수행해야 한다.

#### ■ 견도를 여는 방법

법문을 많이 듣고, 경험하고, 두고, 알아차려야 한다. 법문을 듣고(취약이라는 말을 듣는 것과 같이) 이치를 깨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문해(聞慧)· 들어서 아는 지혜라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법문을 듣고는 깨진 것 같다가도 등만 돌리면 다시 어려움을 반복한다. 어리석은 행위가 오랜 습관이 돼 있기 때문이다. 어리석음을 인정하고 제자리



법륜 스님은 수행을 하기 전에 먼저 '견도'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로 돌아오는 노력을 해야 한다. 이것이 알아차리는 것이고, 이런 지속적인 노력이 닦는 것이다.

지금 깨우쳐야 행복해진다. 어떤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스스로 책임지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은 내 뜻대로 산다는 의미가 아니다. 무지를 깨뜨려야 괴로움 없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다. 정려·사친/대구=배지선 기자

법륜 스님의 '일상에서 행복찾기' 강좌는 '화단의 꽃들은 서로 달라서 조화롭다'(11/1) '현대인의 어리석음: 탐·진·치 삼독'(11/8) '평화로운 세상 만들기: 갈등하는 사회, 화평하는 미래'(11/15) '진정 행복한 삶: 경쟁하는 삶은 가능한가'(11/22) '지금까지와는 다른 삶'(11/29) 주제의 다섯 차례 강좌가 더 진행된다. 강좌는 전국 9개 정토회 법당에서 영상으로 들을 수 있다. (02)587-8994

**아바타 코스**  
나를 찾아 떠나는 9일간의 내면여행!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밝은길 아바타 센터**  
아바타 마스터 김희균  
전통주식은 본래는 인내 자료를 보냅니다.  
지금이야말로 당신이 큰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일생동안 기다려왔던 바로 그 시간입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 **전화문의 상담 환영**  
서울시 종로구 평창동 154-1  
전화 010-6230-2113 ● 02)396-2736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 heegyun@avatar21.com

# 석가모니불 · 사리불 · 아란존자 진신사리 친견법회

구원겁 전에 성불하시고도 중생제도라는 일대사 인연을 성취하기 위하여 사바세계에 오신 석가모니부처님!

지혜제일 사리불존자!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기 전까지 25년간 부처님을 시봉하신, 그래서 가장 부처님의 법문을 많이 들어 다문제일 아란존자님의 진신사리 삼담을 장엄하게 조성하고 있는 천호산 백운사에서 평생을 깨달음의 사회화 운동에 헌신 봉사하고 계시는 이 시대 한국불교의 참 지도자이신 태공 월주 대종사님을 모시고 다음과 같이 대법회를 봉행한 후 마지막으로 진신 사리를 대중이 함께 친견한 후 사리탑에 봉안하오니 모두 오셔서 부처님을 친견하는 선근인연을 맺으시고 복덕과 지혜를 구축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 일 시 : 10월 29일(음 9월 8일) 일요일 오후 2시
- 장 소 : 천호산 백운사 (☎ 063-836-8047)
- 증명법사 : 태공 월주 대종사(전 조계종 총무원장)
- 참고사항  
1. 사리친견은 법회 당일만 가능합니다.  
2. 오시는 길은 호남고속도로 익산 인터체인지로 나와 여산으로 오시다가 여산 송씨 문중산으로 오세요.  
3. 부처님 진신사리탑은 8각 9층입니다.

## 대한불교조계종 제17교구 천호산 백운사 주지 우성 합장